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 과열... ‘깜깜이 경선관리’ 지적

예비후보 간 비방·고발전 이어지면서 유권자들 ‘눈쌀’ 경선 발표 지연되면서 각종 의혹 난무...신경전 부추겨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열로 광주·전남에서 예비후보 간 비방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선 지역 발표가 지연되면서 후보자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광산갑의 이용빈 의원은 14일 오후 광주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균택 예비후보는 자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이자 가

인 A씨가 박균택 예비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흥보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박 예비후보에 대한 홍보기사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가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이 의원이 지역위원회 사무직원에게 후원회 사무실 뒤편으로 급여를 제공한 후 이 중 일부를 돌려받은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당 대표 법률특보인 박 예비후보는 “기자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한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률 위반이 아닌 데도 이 의원 측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면 될 문제를 기자와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양 측의 의혹에 대해 중앙당에 윤리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예비후보는 자신이 전남도 행정부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거나,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 예비후보는 “허위 보도와 선거 방해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언론 행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선거의 공정함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의 경쟁 상대인 김승남 의원은 “문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에 도시 및 지역계획과 관련한 출처가 불분명한 학과명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의원은 ‘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이용주 예비후보 관계자 등 4명을 고발했으며, 여수시을이 지역구인 김희재 의원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민주당 예비후보간 비방과 고발이 이어지면서 지역 유권자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깜깜이’ 경선 관리가 예비후보 간 경쟁을 과열시키고 유권자가 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일부 특정 후보의 ‘허위 20% 포함’, ‘단수 공천 확정’, ‘컷오프 유력’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2차 경선 지역 발표가 지연되고 컷오프 이유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며 “광주 광산갑의 경우 예비후보가 2명인 데도 1차 경선 지역에서 빠져 후보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신당 창당’ 조국 “민주당 저와 같은 점 있을 것”...연대 의지 표명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

신당 창당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박홍근 민주당 추진단장의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박홍근 의원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나 저와 같은 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대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장은 “조국 전 장관과 22대 총선에서 연대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박홍근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렇지만 저는 뚜렷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단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나와 같은 점이 있을 것이다”며 “윤석열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것과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대해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오는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현화·분향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문제를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지금 창당을 선언했고 조만간 창당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 뒤에 당위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육현진 대구교과 김희중 대구교과를 예방한 뒤 오후에는 전남 목포

의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5·18민주묘지 참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함께 했다. 김수권기자

2월인데 4월 날씨...광주·전남 평년보다 10도 높아

따뜻한 남풍으로 포근한 듯

최근 광주·전남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가량 높아 4월 봄처럼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1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6~9도, 전남 낮 최고기온은 15~19도 분포를 나타냈다. 평년(아침 최저 영하 4도~1도, 낮 최고 6~10도)보다 10도 가량 높은 수치로 광주 4월 평년 기온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전남 영광군과 신안군 흑산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10.8도, 11.0도로 역대 2월 최저기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의 낮 기온이 4월과 비슷할 정도로 따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9도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아침 최저기온인 영하 4도~영상 1도에 비해 최대 8도나 높은 것이다. 지난 13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15~19도를 기록, 평년(6~10도)을 크게 웃돌면서 광주 4월 평년 기온값(7.8~19.9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2월 최저기온 최고수위 극값이 경신되기도 했다. 전남 영광군과 신안군 흑산도의 아침 최저



설 연휴가 끝난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대공원 일대에 심어진 매화나무에서 꽃봉오리가 움트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기온은 각각 10.8도, 11도를 기록해 역대 2월 최저기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이 평년에 비해 따뜻한 것은 한반도 남동쪽 이동성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광주기상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현상이 15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6~10도 예상된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가 내린 뒤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14~15일 광주와 전남의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김희면기자

제52회 강진 청자축제

The 52nd
Gangjin
Celadon Festival

2024. FRI-SUN
2.23.-3.3.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